

보성군, 신규농업인 현장서 영농 배운다

귀농귀촌인 영농 기초 기술 교육 실시 ‘호응’

5년 미만 초보 농업인 43명 다음달 23일까지

보성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영농 기초 기술 교육을 실시해 초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신규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 교육은 오는 6월 23일까지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으로 실시되며, 보성군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43명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론교육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실습 과정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론교육은 △농지은행, △귀농 정

책 사업 안내, △귀농인 갈등 관리,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지법, △귀농 창업 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 등으로 꾸려졌으며, 현장실습 교육은 △작물별(고추, 딸기, 키위, 토마토, 단호박) 선진 농가 방문 등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안전교육 및 농기계 운행 실습 교육을 통해 처음 접하는 농기계 작동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계획이다.

이 모 교육생은 고추 1차 현장실습 후에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딸



기, 키위, 토마토, 단호박 현장실습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신규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교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권현주 소장은 “귀농 귀촌인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성군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 농산물 전국에 알릴 ‘공동상표 디자인 공모전’ 개최

6월 9일까지 접수...총 상금 500만 원

여수시가 품질 좋은 여수시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여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농산물 공동상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농산물 수급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

응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는 기존의 ‘금강고운’이 있으나 물산의 이미지가 커 농가의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지역 모든 농산물을 아우를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했

다.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여수시 도시브랜드인 섬섬여수(BI)를 활용해 특정 농산물을 부각시키지 않고 다양한 농산물을 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접수서류 등을 확인하고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수작품 5점을 선정해 최우수 1명(250만 원), 우수 1명(100만 원), 장려 3명(각 50만 원)에게 총 50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6월 중 개별통보와 함께 여수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포장재 인쇄, 전시, 홍보, 온라인 등 여수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여수=오상호 기자



고흥군, 코로나 19 예방접종 AZ백신 사전예약 순차실시

고흥군은 5월부터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60~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예방접종 예약은 접종대상자가 70~74세(1947~1951년생)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의 경우 5월 6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의 경우 5월 10일부터, 60~64세(1957~1961년생)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 그리고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들은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사전예약 대상자는 고흥군 관내 위탁의료기관 가운데 가까운 의료기관을 정해 사전예약을 하면, 65~74세 그리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5월 27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교

사, 돌봄인력 그리고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들은 6월 7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으며, 접종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회 접종으로 1차 접종 이후 11~12주 뒤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콜센터’(전화번호 1339)와 고흥군 콜센터(830-4614~4615)에서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혼자 예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고령자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고용부 일자리 창출 공모 선정

1억7천5백만원 확보...신재생에너지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추진

광양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 공모에 1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1억 7천 5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청년취업 아카데미’이며 케미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최근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해 ㈜피앤오케미칼 등 한국판 뉴딜형 기업들

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역 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 29일 ㈜피앤오케미칼과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병주 투자일자리과장은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사업과 더불어 지역 내 청년들에게 훌륭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순천시 ‘교통안전 지킴이 서포터즈’ 모집

오는 12일까지 선진 교통문화 확산 관심 누구나 가능

순천시는 선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지킴이 서포터즈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교통안전 지킴이 서포터즈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문화도 시운전 질서 확립 시민운동으로 순수한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연말 단체표창과 시상금과 더불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은 교통안전 캠페인 및 릴레이 챌린지, 사회관계자 비스망 등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홍보 등이다.

특히 거리캠페인 및 SNS 등을 통하여 최근 개정된 “안전속도 5030”, 5대 불법 주·정차 차량 금지(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보행자 안전수칙을 중점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선진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진 10인 이상 개인·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